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3. 1. 4.

한국산업위생협회

한국산업위생협회 협회지 겨울호 발간 안내

한국산업위생협회가 협회지(2023-Vol.3 겨울호)/ISSN 2983-368X가 발간되었습니다.

KOHA 특집

1.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의 안전보건 컨설팅
2. 작업환경측정제도의 나아갈 방향

KOHA 연재

1. 안전사고 해결을 위한 스마트 건설과 안전
2.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심사 인증 준비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4. 미래사회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
5. 안전문화의 이해-안전문화 구축의 필요성
6. 통증잡는 째짤이 스트레칭
7. 정확한 방법을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8. 손목질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원인 및 예방 대책

KOHA paper

1. 중소기업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시행과 안전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기술홍보 및 동향

1. 나노입자 분포측정

사고사례 및 교훈

1. 화학물질 안전성 및 유해성 관련 사고사례

이 밖에도 KOHA 소식 및 활동, 성안당 산업안전지도사 1차 이더닝, 영화 『엘리시움』, 책 『한국형 리더십코칭을 말한다』, 책 『팬데믹시대 안전리더십』의 소개와 안전보건 기자활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kohma23.iwinv.net/202303/>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2)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2보] 원청대표 첫 '중대재해법 실행'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기도 하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8077300004?input=1195m>

정부·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1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1202181

신규화학물질 통합 공표 명단

※ 동자료는 '92년부터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목록을 하나의 통합파일로 작성한 것으로 「산업안전기본법」 상 신규화학물질로서 공표 여부를 확인하여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1202193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입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1202279

속칭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 산재보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산재보험 제도 혁신 추진

12월 20일 고용부는 지난 11.1.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980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 갈탄, 숯탄 대신 일산화탄소 적게 발생하는 열풍기 사용 권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으며 이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983

(참고) 강추위,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 현장점검

- 12월 21일, 「한파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한파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12.21.(목) 「한파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지난주부터 한파에 따른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야외근로자에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5년간(’18~’22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으로, 대부분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으로는 동창·동상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987

“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 디지털 트윈 구축으로 축사지붕 위험도 판단하는 산재예방사업 ‘시범추진’

- 향후 드론사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위험도 판별 ... 단시간에 넓은 지역 확인 가능

지난 3년간(’20~’22년) 축사 ? 공장 ? 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 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붕공사 추락 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 사진을 통해 지붕의 재질, 노후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판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고위험 지붕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999

(참고)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 33조 6,825억원으로 확정 -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3조 6,825억원으로 의결되었다.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②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③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992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함께 만들어요!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12.27. 제24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 50억 이상 건설현장 집중 점검 및 연말·동절기 중대재해 주의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27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동절기 중대재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10

산업현장에 꼭 맞는 안전기준으로 합리화하다

- 안전기준 합리화 개선과제 올해만 41개 개선 완료
-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망사고 안전조치 등 40개 추가 개선과제 입법예고(12.27.~2.7.)

고용노동부는 지난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등의 위험 요소도 과거와 달라지므로 안전기준도 이를 반영하여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안전규제의 합리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먼저,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특별반」(위원장: 차관)을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왔고, 반도체, 건설, 화학 등 국가핵심산업에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검토해왔다.

특히 금년에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하여 현행 및 해외 안전기준, 관련 기타 법령을 참고하여 낡은 안전기준 등을 현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총 93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 중 65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23년 중에만 41개 과제를 개선 완료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공장 내 비상구 설치 관련 기준의 경우 건축 관계 법령과 달라 효율적인 기계배치가 어렵고 이중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건축 관계 법령과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한 비계 설치시 대형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비계기둥 간격을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안전기준의 합리적 개선 과제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23.8.24.)에서도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핵심 과제로 보고된 바 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06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 8만개+α 사업장 선정 → 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
-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 2만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 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11

화학물질, 똑똑히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 합리화 -
- '23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65종의 유해성·위험성 및 조치 사항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24.1.9. 시행)한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16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35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94개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아울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28

노동약자 보호와 노사법치 확립에 힘쓴 「2023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개혁의 기반인 법치확립과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위해서 2023년 한 해 동안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38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2023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2023년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6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00명이 넘는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 6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산재예방, 중대재해 수사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학습조직 운영, 혁신행정 사례 발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선정된 산업안전감독관 모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잘러'이기도 하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4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60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2014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20205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20205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202058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6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202190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 [12/15, 대전 유성구] 고압용기 폭발로 인한 넘어진 천장크레인에 깔림
- [12/15, 충남 아산시] 사일로 내부 청소 작업 중 화재
- [12/7, 경기 포천시] 포대를 2층에서 1층으로 던지다 포대와 함께 떨어짐(2m)
- [12/19, 경기 파주시] 분장실 천장 판넬 철거 중 판넬과 함께 떨어짐(2.9m)
- [12/20, 경북 의성군] 활선 차량 버킷에 탑승하여 작업 중 버킷 연결부가 파손되어 떨어짐(8m)
- [12/22, 대구 달성군] 입식 지게차로 후진하던 중 건물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임
- [12/21, 경기 동두천시] 제품 하역을 위해 후진하던 화물차와 이동 중이던 재해자가 부딪힘
- [12/22, 인천 남동구] 항타기 위에서 와이어를 밟고 있던 중 와이어가 당겨지며 항타기에서 떨어짐
- [12/22, 충남 예산군] 섬유제조 설비에 원사를 이어붙이던 중 끼임
- [12/22, 서울 구로구] 바닥 슬라브 철거 작업 중 슬라브와 함께 떨어져 깔림
- [12/20, 부산 부산진구] 설비 위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바닥으로 떨어짐
- [12/22, 부산 해운대구] 트럭 위에서 하역 작업 중 굴착기에 인양된 자재에 밀려 바닥으로 떨어짐
- [12/22, 인천 남동구] 냉각수 탱크의 지붕 위에 올라가 통신선 설치 작업 중 지붕 판넬이 파손되어 탱크에 빠짐
- [12/24, 경기 여주시] 벌목된 나무를 기계톱으로 절단하던 중 다른나무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맞음
- [12/24, 인천 서구] 엘리베이터 피트 내 강관비계 조립 작업 중 피트 바닥으로 떨어짐
- [12/26, 광주 광산구] 육류 배합기에 다짐육을 혼합하던 중 배합기에 팔이 끼임
- [12/26, 경기 양주시] 창호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짐(3m)
- [12/26, 울산 울주군] 10층에서 청소 작업 중 자재인양구에 빠져 9층 바닥으로 떨어짐(2.8m)
- [12/26, 전남 장흥군] 철골 조립 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중인 H-빔에 맞음
- [12/27, 경기 고양시] 운반 대차를 이용하여 유리자재를 운반 중 넘어지는 유리자재에 깔림
- [12/28, 경기 과천시] 지붕 철거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
- [12/28, 경기 화성시] 비계 해체 작업 중 떨어짐
- [12/28, 경남 창원시] 폐기물 상차 작업 중 집게차의 집게에 끼임
- [12/28, 경북 경주시] 설비 정비 작업 중 설비가 가동되어 끼임
- [12/29, 부산 동래구] 실외기실 외부 도장 작업 중 떨어짐
- [12/28, 전남 무안군] 비계 재설치 작업 중 떨어짐
- [12/28, 부산 강서구] 빗물 저류조 내부에 빠짐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위탁) 수행기관 모집 공고

'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위탁)」 수행기관 모집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역량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기관 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월 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752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20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역량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내용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

- 지원규모 : 1,000개사(7,000회)
- 예산규모 : 42억원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4.12.13일(금)
- 사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4.11.29.(금)
- 지원대상 : 종합건설업(시평액 순위 200위(토건기준)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포함)
- 지원비용 : 별도 계약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비 지급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7522&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Key=article_title

“지붕추락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 디지털 트윈 구축으로 축사지붕 위험도 판단하는 산재예방사업 “시범추진”
- 향후 드론사진 입력하면 시가 위험도 판별 ... 단시간에 넓은 지역 타기팅 가능

지난 3년간('20~'22년) 축사, 공장, 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 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 사진을 통해 지붕의 재질, 노후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판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사업이 고도화 되면 고위험 지붕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디지털 트윈 : 현실의 시설이나 장소를 가상의 디지털 공간으로 구현한 것

공단은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디지털지도를 구축하였다. 먼저 경상남도 합천군과 협업하여 디지털 트윈 구축 대상 축사 405개소를 선정하였고,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후에 드론을 사용하여 항공촬영(해상도 5cm/pixel)을 실시했다.

촬영된 축사 지붕의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붕 재질, 노후, 파손, 채광창/태양열 발전/개구부 등의 위험요소에 면적, 수량 정보를 반영한 위험도 판정기준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기준은 축사 405개소에 적용하여 5단계(위험-심각-경고-주의-양호)로 위험도를 판정하는데 사용되었다.

공단은 축사의 위치정보와 위험도 정보를 시각화한 디지털 지도를 제작 했으며, 고위험 축사 직접 기술지원, OPS 등의 안전보건자료 배포, 지자체(합천군)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 산재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4744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일감 중심의 콘텐츠 생산 노동의 문제점: 웹툰 작가의 사례

이제 앉아서도 운동하세요. 가자미근 푸시업!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웹툰

웹툰 좋아하시나요? 저는 2006년부터 웹툰을 즐겨보았습니다.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많이 만들어져 웹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실감합니다. 국내의 만화 산업은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웹툰은 2019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국내 웹툰 산업 연 매출액은 1조 5,660억원으로 2021년 대비 48.6% 성장하였고, 국내 웹툰 작가의 수도 2020년 7,407명에서 2021년 9,32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022년 웹툰사업체 실태조사

웹툰작가들의 건강 적신호

웹툰 산업의 성장의 이면에는 웹툰 작가들의 고된 노동 환경이 있었습니다. 2022년 '나 혼자만 레벨업' 장성락 작가가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웹툰 '룩사나'의 작화 작가가 유산 후에도 휴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 작품 연재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지원으로 전업 웹툰작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28.7%가 병원에서 우울증상으로 의사의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장애는 28.7%, 자살사고는 17.3%였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질환과 방광염, 위장질환과 안과질환의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 [기사] 30대 웹툰작가 사망에 노동여건 논란
- [기사] '유산하고도 연재 계속' 웹툰 업계 논란
- [기사] 1주일에 70컷, 밤샘 작업하다 '우울증' 일반인의 12배, 2023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49/>

현대 생활과 운동의 새로운 접근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생활방식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좌식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신체적 활동 부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양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전통적인 운동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앉아 있는 동안에도 운동을 할 수 있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드릴 '가자미근 푸시업'이라는 운동은 앉아있는 동안에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자미근 푸시업의 개념, 방법, 그리고 이 운동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가자미근 푸시업의 개념

가자미근 푸시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가자미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자미근은 우리 몸에서 단 1%의 비중만을 차지하는 작은 근육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근육의 역할은 매우 중대합니다. 종아리의 뒷부분에 위치한 가자미근은 체중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걷거나 달릴 때 발바닥을 굽혀 힘을 주는 과정에서도 이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걷거나 달리는 데 있어 가자미근이 쉽게 지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만약 이 근육이 빨리 피로해진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자미근 다른 근육들과 달리 에너지를 글리코겐으로 저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포도당과 지방을 직접 사용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근육은 다른 근육에 비해 잘 지치지 않습니다.

가자미근 푸시업은 가자미근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가자미근만을 사용하는 특별한 운동입니다. 걷기와 유사하게, 이 운동은 지치지 않고 장시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혈당과 지방을 낮출 수 있습니다.

[SBS스페셜] 육체실험 - 혈당 낮추는 효과를 가진 '가자미근 운동'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50/>

[입법예고] 의사 1인당 배치 전 검진 포함, 특수건강진단 인원 1만3천명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의사 1인당 인원 변경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년 12월 27일에 공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제출기한은 2024년 2월 7일까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

1.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결과 보고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종류에 배치전 건강진단이 추가됨
2. 배치전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가 기존 10,000명에서 13,000명으로 확대됨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을 제외한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는 10,000명까지로 제한)
3. 동일 유해인자 또는 동일 검사항목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을 시행한 경우, 반복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도록 면제하는 기준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
4. 일산화탄소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생물학적 표지자 검사를 1차 검사에서 삭제하고, 2차 검사항목으로 변경
5.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 기준이 90dB에서 85dB로 변경

배치전 건강진단의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에 따르면, 기존에는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 이외 배치전건강진단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치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의사의 주요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 의사 1인당 1만 3천명

제211조제5항 중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에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은 1만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 포함하는 것에 대다수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치전 건강진단 인원을 기존의 제한 기준인 1만명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체 특수건강진단 인원을 1만 3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 1인당 실시 인원이 과도하여 건강진단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51/>

산업보건과 환경보건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문진영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보건과 환경보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는 수련기간동안 산업보건을 중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임상 실무(특수건강검진, 보건관리대행)가 산업보건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에 더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환경보건은 수련 커리큘럼에서 아주 적게 다루고 있고, 과 이름에 '환경'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젠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좀 가벼운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다들 대략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환경보건과 산업보건이 다루는 유해인자는 같습니다. 다만 산업보건이 소수의 노동자가, 고농도의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도 일이 아니면 노출되지 않고 피했을 겁니다.) 상황을 다룬다면, 환경보건은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으로 저농도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상황을 다룬다는 점이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라돈을 들 수 있습니다. 초창기 라돈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광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에게서 높은 폐암 발생률이 보고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라돈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1950년대, 60년대 논문들 중에 광산 노동자들에서 라돈 노출 선량과 폐암이나 각종 다른 암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많습니다. 이러한 연구 트렌드가 이제는 저선량의 일반 거주지 노출과 백혈병 등 암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거지 저농도 라돈 노출이 백혈병의 발생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용량-반응 메타분석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 [EPA Assessment of Risks from Radon in Homes](#)
 [논문] [주거지 저선량 라돈 노출과 백혈병의 연관성에 대한 용량-반응 메타분석](#)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52/>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와 식욕

김수현

서론

지난번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과연 심혈관질환에 나쁠까?\(오이레터 39호\)](#)"라는 주제로 최근 주목을 받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와 심혈관질환에서 장단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탄수화물의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더 섭취하는 식사 방식을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과도한 식욕은 과식으로 이어져 체중 증가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욕이 낮아지면 더 적은 음식 섭취로 이어지고 더 적은 음식 섭취가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식욕의 조절은 체중 감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통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식욕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와 식욕 조절 메커니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식욕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체는 여러 호르몬을 통해 식욕을 조절하며, 이 중 **펩타이드 YY(peptide YY)**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펩타이드 YY는 식사 후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저지방 식이에 비해 펩타이드 YY의 감소를 덜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의 감소는 식욕 조절에 중요한 다른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혈당 수준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Ghrelin)**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을 조정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와 안정적인 혈당 조절이 식욕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53/>